

† 찬미예수님

우리의 걱정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본질적인 고민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걱정거리 이전에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내게 죄스러운 느낌이 들게 한다면, 나는 분명히 재물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간혀, 현재(present)를 선물(present)로 살지 못하고, 내일을 미리 오늘로 앞당겨 사느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잊고 살아도, ‘내 바위, 내 구원’이신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2월 26일 복음 말씀 연중 제 8주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4-3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28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화려하지 못하였다. 30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주임 신부 이야기

반갑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이번 공지부터는 더욱 알찬 내용과 회장단의 일을 돕고자 공지 작성에 함께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목은 “주임 신부 이야기”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한 메모가 붙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1. 멋진 하모니:** 우선 요즘 뜨락 친구들을 비롯하여 하모니 회원들이 늘고 있어 너무도 기쁩니다. 기존 회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새로 오는 젊은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젊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함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2. 밴드 활성화:** 제가 부임하여 뜨락 및 하모니 회장단에게 밴드 활성화를 부탁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기기 활용시간이 많으니 이 밴드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회장단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

**3. 가정성화 주일 및 일치 미사:** 돌아오는 주일 2월 26일은 공동체 가정 성화 및 일치의 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8시 미사 참례자와 11시 교중 미사 참례자들의 만남과 일치의 날이고 공동체 전체가 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공동체 일치를 향한 하나의 이벤트이죠. 하모니 회원들도 이날 꼭 다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 시기를 시작하기 전 힘 내라고 전체 신자들을 위한 점심을 제가 씁니다. 화려한 점심은 아니지만 소박한 국밥 한그릇을 먹으며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뜨락과 하모니

회원들이 이날 어른 들을 위해 봉사해주기를 바랍니다. 참, 이미 회장에게 자발적인 봉사를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모니 회원들은 제 사목에 든든한 지지자들입니다. ^^ 감사합니다.

**4. 사순시기 시작(재의 수요일):** 3월1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재를 받으며 제대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자신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은총이 많습니다. 밀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활기 차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떨까요? 재의 수요일 저녁 미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재의 수요일란? [여기클릭](#))

첫 공지인데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다음 공지부터는 짧고 담백한 내용들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느님 은총 안에서 힘 내세요. 감사합니다.

---

## 2017년도 2월 넷째주 공지입니다.

**\*\*\* 더욱 풍요로운 연대와 공지 전달을 위해 '신부님 이야기'로 저희들과 소통하고 챙겨주시는 신부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지난 행사>

#### 안나/요아킴회 점심 서빙 및 설거지 봉사 - 2/19

19일 주일 교중 미사 후 성당의 어르신들 만나회/요아킴회 정기 모임에 점심 준비 및 뒷정리/설거지 봉사를 하며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신 하모니, 뜨락회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 주보 나눔 봉사

교중 미사 전 성당 정문 앞에서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계신 주보 나눔 봉사를 앞으로 청년부에서 함께 할 계획입니다. 주보를 전달 하면서 새신자 분들, 특히 새로 오는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인사하며 청년회 소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계획하게 되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하모니 회비

하모니 창단 후 지난 일년 동안은 많은 신자분들의 도움으로 회비없이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해 부터는 우리 안에서 회비를 걷어 활동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연 2회로, 6개월에 \$20이며 일 시불(\$40)도 가능합니다. 단, 새로오신 분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드리며 이기간 동안의 회비납부는 본인의 뜻에 맡깁니다.

### 밴드 활성화

신부님 말씀대로 하모니 밴드를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 2/23 목

매월 네번째 목요일 오후에 성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저녁식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하모니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후 4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6시/6시반경에 배식을 시작합니다. 4시 또는 퇴근 후 6시경에 시간되는 분들, 목요일에 만나 함께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일시: 2/23 목 오후 4시 (시작)

장소: 722 Washington St. Oakland (\* <https://www.cityteam.org/oakland/>)

(\*Cityteam은 1957년부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과 숙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해 온 비영리 그리스도교 단체입니다.)

### 합동미사 및 전신자 사진 촬영 - 2/26 주일

2/26일 주일은 아침 8시 미사가 없고 **11시 공동체 일치 미사**로 봉헌되며 **미사 후에 전신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위의 신부님 말씀대로 '공동체 일치'를 위한 행사이니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꼭 사진을 찍고 신부님께서 주시는 점심 식사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꽃단장 하시길~

### 공동체 일치 행사 후 설거지 봉사 - 2/26 주일

전신자 사진 촬영 및 점심 식사 후, 우리 청년들 (하모니, 트락회)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뜻깊은 행사와 더불어 청년들을 위해 신경 많이 써 주시는 신부님의 한턱 점심 식사 후의 봉사라 더욱 뜻깊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허리위는 꽃단장, 허리밑은 노동에 편안한 ^^ 복장으로 오세요~

### 성지가지 회수 - 2/26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미사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을 합니다. 이 예식에 쓰이는 재는 작년 예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했던 성지가지를 태워 만들고 이를 사제가 축성합니다. 작년에 받은 성지가지를 성당 입구에서 회수하고 있으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전례 - 3/1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미사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7:30**에 있습니다.

### 청년 창세기 성경모임 - 3/4 오리엔테이션

조마오로 수녀님과 함께하는 청년 창세기 성경 모임에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소망방에서 첫 모임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이니 연락 / 신청 바랍니다.

###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 \***주모경**은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뜻하지만 통상적으로 '주모경'을 바칠때는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의 세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mailto: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http://www.oakcc.org)